

1. 3. 탈진실 문화의 탄생

①

- 브렉시트의 주동자들은 자기네가 '진실'이 아님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견해들을 밀어붙였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했다. 하지만 자기네는 “실제로 어떤 사실fact도 존재하지 않으며” 실제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참으로 그렇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점을 숨기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는 사실상 희희낙락하며 거리낌 없이 거짓말을 한다. 그는 선 거 유세 기간 동안 주장한 내용 중 50퍼센트가 진실이 아닌 말을 했지만 여론 조사 결과 사람들은 트럼프가 힐러리 클린턴보다 '더 정직하다'고 느낀다고 답했다. 사람들은 이미 '사실에 입각한 진실'에서 '내가 말하는 것이 진실이야'로 전화해 버렸으며 트럼프는 힐러리보다 훨씬 더 강력한 확신과 열정을 갖고서 자신의 '진실'을 설파했다. 그래서 진실이 존재하지 않는 문화 속에서는 트럼프가 '더 진실한'사람이었다
- 무관점적인 광기의 환경에서는 내가 가장 열렬히 욕구하는 것이 진실이 된다. 니힐리즘의 바다에서는 열정적인 나르시시즘이 핵심적인 결정인자다.
 - * 최근 아이들의 나르시시즘은 이전 부모 세대(부머 '미me 세대'보다 두세 배 정도 높게 나왔다
 - * 셀피 문화 Selfie Culture의 출현¹⁾ - 소셜 미디어들은 개인이 스스로 조장하는 사실들에 누구도 도전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메아리방 echo chamber 안에서 '기분 좋은 거짓말'과 '위안을 주는 거짓말'을 하라고 부추김

②

- 녹색의 문화 엘리트들(인문학자, 진보적 정부, 기술혁신자, 복지사업 전문가들, 진본적 연예인..) 녹색의 다원론과 상대주의("네게 진실인 것은 네게 진실이고, 내게 진실인 것은 내게 진실이다") 속으로 계속해서 행진해갔다. 이는 명백한 한계를 지닌 근본적으로 자기모순적 태도임. 위의 주장은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는 우월한 진실이므로 이의를 제기해서도 안 되고 너 자신의 다른 의견을 가져서도 안 된다는 것. "내게 진실인 것은 내게 진실이고, 네게도 역시 못지않게 진실"이라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주장
- 만일 모든 진실이 내게만 진실이고 너의 진실은 다르다고 한다면 '우리의 진실'(집단적, 응집적, 통합적인 진실)은 존재하지 않을 것임. 이런 **무관점적 광기의 환경**에서 무수하게 조각난 문화를 위한 무대가 마련되었으며 소셜 미디어의 **밀폐된 격납고와 메아리 방**들은 그런 문화를 거의 전적으로 조장하고 부추기기 시작하였다.
- (포스트모더니즘의 민족주의적 퇴행) 무관점적 광기에서 비롯된 녹색 자신의 혼란 상태에서 모든 것이 평등하므로 특정한 어떤 가치도 비판할 수 없고, 세계중심적이거나 보편적인 모든 태도는 맹렬히 부정당하고, 개인들이 민족중심적 태도들에 적극적으로 빠져 들어가고 심지어는 그리로 퇴행하는 것까지도 허용된다. 그렇게 해서 포스트모더니즘이 빚어낸 온라인 소셜 미디어는 민족중심적 성향이 뚜렷한 집단들 속으로 퇴행해 들어가기 시작했다.

1) '셀피'는 자기 모습을 직접 찍은 사진을 뜻하는 말로 2013년 옥스퍼드 사전이 선정한 올해의 단어. 셀카 문화가 여기에 속함

- 그런 일은 보수진영과 진보진영 양쪽 모두에서 일어났다. 보수진영에서는 트롤(troll)들²⁾, 곧 어떤 소수파나 소수파의 견해를 대상으로 해서 비난 글을 끝없이 올려대는 참으로 야비한 민족중심적 웹 서퍼들이 그런 흐름을 주도했다. 하지만 진보진영도 세계중심적 혹은 보편적인 진실들을 다 부인함으로써 결국 민족중심적인 것들을 강박적으로 쫓아다녔다.
- (정체성 정치의 편파성과 분열) 인터넷은 원래 모두를 포용하는 거대한 ‘글로벌한 뇌’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마음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 인터넷은 1이 아니면 0을 선택하는 양자택일을 지향하고 있고 익명성(본인의 인간성을 숨길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격성과 나르시시즘과 증오심이라는 퇴행적 성향들, 무수히 많은 격렬한 민족중심적 믿음(성차별주의, 인종차별주의, 외국인 혐오증, 광적인 종교 편향, 편협한 정치, 트롤과 정체성정치의 믿음들)을 허용해줬을 뿐만 아니라 조장하기까지 했다. 이런 움직임에 제동을 걸 ‘진실’이 부재했기 때문에 온라인의 경험은 저열한 민족중심적 충동들로 전락해버렸다.

새롭고도 충격적인 정당성 위기

- 문화적 믿음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모든 사람이 자신의 권한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는 완전하고 평등한 권리를 갖고 있고, 본래 그 누구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월하지 않다는 것이었으며, 이런 믿음은 녹색과 함께 화려하게 꽃피었다. 그러나 압도적인 현실 reality는 실업과 부의 불평등이 의료서비스, 재산 소유권,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고 결국 문화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화가 ‘어떤 진실’도 갖고 있지 않다면 그 문화는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을 때도 그러는 줄을 모른다. 따라서 우리가 ‘해체’라는 말을 입에 올리기도 전에 이미 그 문화는 정당성의 위기 속으로 휘말려 들어간다.
- 녹색 ‘정보화시대’는 모든 지식이 평등하다고 믿었고, 모든 지식이 완전히 자유로워져야 되고 검열도 받지 말아야 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검색엔진들은 진실, 선, 아름다움, 포괄성, 깊이, 가치 체계 등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그저 인기와 가장 많은 사용 빈도의 관점에서만 지식을 바라봤다. 인터넷에서 진실은 어떤 역할도 하지 못했다. 페이스북은 자기네 플랫폼에 많은 ‘가짜뉴스’가 올라와 있다는 점을 인정했으며, 많은 이들이 트럼프가 승리하는 데 그런 점이 도움이 됐다고 주장했다.
- 구글이 “세계의 정보를 조직하고, 그것을 보편적으로 접근하기 쉽고 유용한 것들로 만드는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더없이 분명하다. 구글은 무관점적 광기의 환경에서 세계의 정보를 교란시키고 있고, 모든 견해가 다 완전히 동등하고 평등하게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고 할 정도로 ‘다양성’을 극단적으로 밀어 붙이고 있다. 그리고 구글은 그 탈진실과 대안적 사실을 팔아먹는 것으로 밥벌이를 하고 있다.
- 구글에 높은 검색률을 자랑하는 ‘모든 여자는 사악하다’, ‘모든 유대인은 사악하다’는 등의 진술은 참된 진실과 전혀 닮은 것들이 아니지만 그런 집단적 살짜 맛이 간 탈진실의 세계에서는 진실로 통용되는 그런 민족중심적 편견들을 열렬히 받아들인다. 그리고 구글은 그런 편견들을 가급적 빠르게 하루에 55억 번이나 세계 전역에 돌려댄다.
- ‘탈진실’ 문화에서 진실은 그저 참으로 가치 있고 이상화된 항목들의 목록에서 탈락했고 구글, 페이스북, 가짜뉴스, 대안적 사실은 이미 파괴적인, 그러나 당연시되는 새 세기의 새로운 도덕의 일부가 되었다. ‘가짜뉴스’는 새로운 뉴스다.

2) 인터넷 공간에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기 위해 정해진 주제에서 벗어나거나 자극적인 내용을 올림으로써 혼란을 야기하고 쾌감을 얻는 사람.

- 인터넷 메아리 방은 위안이 되어주는 기분 좋은 거짓말에 대한 우리의 욕구를 만족시켜주고 있으며, 21세기의 결정적인 도전 과제가 되었다.
- 학계의 녹색 첨단에서 시작된 ‘진리는 없다’라는 무관점적 광기는 대학에서 튀어나와 엄청나게 다양한 다른 형태들로 변형되었다. 수많은 형태로 탈바꿈한 그런 광기의 예를 열거하자면, “진리는 없다”로부터 시작해서 광적인 평등주의, 자유언론과 규제받지 않는 지식 획득에 대한 과도한 검열, 극단적인 정치적 공정성, ‘빈곤의 평준화’를 불러온 극좌의 정치적 의제들, ‘더 수준 높거나 더 나은’ 견해를 찾아보기를 거부하는 평등주의적인 ‘무판단’의 태도, 여기저기에서 평등주의적인 평면세계를 찬양하는 연예계의 행태, 성장 위계를 지배력 위계로 혼동함으로써 모든 성장 위계를 거부하는 태도, 사실상 제아무리 천치 같은 관점이라 해도 상관하지 않고 가능한 모든 대안적 관점(홀로코스트가 있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관점 같은)에 동등한 시간을 부여해주려는 노력으로 귀결되어버린 미디어의 평등주의적 ‘공정함’의 감각, ‘위안이 되는 기분 좋은 거짓말’이 표준으로 통용되는 메아리 방과도 같은 소셜미디어 등이 그렇다.
- 그런 풍조가 진화의 첨단 자체에 흠뻑 배어들면서 그 첨단을 수행 모순에, 분명히 드러나거나 숨겨진 형태의 광범위한 무관점적 광기 속에 빠져들게 했으며, 이내 니힐리즘과 나르시시즘, 탈진실 문화 전체가 그런 광기를 조장하고 부추겼다. 그리고 그런 문화는 심지어 인터넷에까지 침투해서 그것을 엄청나게 뒤틀어 놓았다. 문화 전반의 전체적인 정보망 자체가 그렇게 엉망인 상태에 빠져들었으며, 그런 결과를 빚어낸 힘이야말로 우리가 한 첨단이 갖고 있으리라 예상하는 깊고도 광범위한 유형의 영향력이었다. 지금 세계는 이런 엄청난 황무지에 서 있다.